

논·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 자제해야

농진청, 애벌구 등 해충류 11% 방제·톡톡이 등 천적 곤충류 89% 피해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관행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는 낮고, 오히려 익충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애벌구·벼물벼구미·끝동매미충 등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거미·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3㎡의 면적에 서식하는

곤충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총 8,164마리가 나왔는데 이중 애벌구, 끝동매미충 등 해충은 908마리에 불과했고,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곤충은 7,256마리로 조사됐다.

특히 벼물벼구미·애벌구와 같은 해충은 아산의 땅속과 논밭두렁 잡초 흙속 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고, 오히려 논두렁에 서식하는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곤충만 태워 죽이게 된다.

또한 논·밭두렁은 태운 지 60일이

지나야 식생과 동물상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 75일이 지난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산림청 집계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3,935건으로 연평균 394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3월~5월에 50% 이상 발생하고, 피해면적도 396ha로 82%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8%로 가장 높고, 논·밭두렁과 쓰레

기 소각이 31%, 담뱃불 등 기타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봄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142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51건(36%)은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져 태우는 행위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해충에 대한 직접적인 방제 효과보다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크고, 오히려 파괴된 생태 환경과 천적류의 복원이 늦어진다는 점을 농업인 교육을 통해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10주년 모바일앱 공개

31일까지... 최대 1만5,000원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창립 10주년을 기념 앱블럼과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이스타항공의 새 앱블럼은 '10'이라는 숫자를 비행기의 횡단 도약으로 형상화해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비전을 담고 있다.

새 앱블럼 공개와 함께 고객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도 새 단장해 선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버전으로 재오픈했다.

모바일 어플 이용 시, 편리한 접근성으로 다양한 이스타항공의 항공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앱 오픈을 기념해 16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 결제 시, 국내선 최대 1만원 국제선 최대 1만5,000원 즉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의 탑승기간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모바일 결제 시 여정 선택 후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estarjet>)에서는 앱 오픈 기념 댓글 이벤트를 23일 까지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앱을 다운 받은 인증 사진을 댓글로 단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CGV 영화예매권을 제공한다.

이스타항공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앱은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며, 순차적으로 IOS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 2의 창업을 통한 글로벌항공사로의 도약 원년의 해라는 경영목표를 통해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안재용 기자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 봄·가을철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년 진료인원 180만명 이상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주로 봄이나 가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180만명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고 있었으며 3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 소강상태 이후 가을에 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진료인원 5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 1.5배 높았고 1인당 진

료비는 약 2만8,000원꼴에 달했다.

월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 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와 비교해 4월에 환자가 더 증가하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발생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 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지역으로 조사됐

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환자수(5년 평균)가 많은 지역은 대전(4,369명), 광주(4,116명), 제주(4,115명)순이었으며 경북(2,502명), 대구(2,663명)는 적었다.

충남과 전북지역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각각 3,873명, 3,484명으로 2011년 대비 562명, 317명이 더 늘어 타 지역보다 증가폭이 컸다.

심원일 김하경 심사위원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외부활동 시 인공눈액 사용, 안경착용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상협, LX공사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로 통합 반대

전북상공인의 모임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한국도로정보공사(LX)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통합함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한국도로정보공사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전북지역본부를 없애고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 전북도민이 하나돼 '전북뭉치'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로정보공사 전북본부의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공인들은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무채용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본부가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합된다면 전북출신인재 채용이 축소돼 일자리 없는 물론 인구유출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상공인 모두는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북본부를 없애려는 방안을 철저히 줄 것"을 촉구했다.

/안재용 기자

새만금청, '국립새만금박물관 전시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새만금개발청은 16일 국립새만금박물관의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공모 당선작으로 (주)인테크디자인의 '새만금의 기억, 공감, 공존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당선작인 '새만금의 기억, 공감, 공존의 이야기'는 유물,유적 재현과 대형 영상으로 현실감 있는 역사적인 장면 연출, 첨단 매체를 통한

미래의 가상 체험, 미디어·모형 등 복합 기능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있는 입체적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선작을 토대로 조속히 전시 설계를 진행해 2020년까지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임중식 전북조달청장, 지역 제조업체 현장방문

전북조달청 임중식 청장은 16일 우수조달품목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생산업체인 (주)동원프라스틱과 파형강관제조업체 성호철관(주)을 방문하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익산에 소재한 (주)동원프라스틱은 폴리에틸렌관 등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성호철관(주)은 파형강관(MAS 제품), 파형강관익관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이다. 임중식 청장은 "도내 제조업체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성장 제품을 육성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가 '코리아 나라이터 엑스포' 등을 통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농협NH복합뱅크', 가입고객 50만명 돌파 기염

전북농협은 농협상호금융이 지난해 7월 출시한 NH복합뱅크가 출시 7개월 만에 가입고객 50만명 및 복송금 이용건수 350만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NH복합뱅크는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조회, 송금, 결제 등 핵심기능 위주로 구성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앱으로 사용 편의성 면에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음성송금, 핸드폰번호 송금, 카카오톡 송금 등 편리한 기능을 갖춘 '복송금'은 젊은 고객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객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단기간에 송금건수 350

만건을 돌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대훈 대표이사는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이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NH복합뱅크의 서비스를 금융 및 생활편의 핵심기능 위주로 특화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만의 핀테크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NH복합뱅크의 폭넓게 이용을 확대하고 계열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의 모바일결제 기능을 4월초 오픈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